

도서관과 문화

서구에는 '도서관 문학'이라고 부를 만한 문학작품들이 많이 있다. 도서관이 작품의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들 수 있다. 이 유명한 작품의 무대는 수도원이다. 그러나 그곳은 단순히 수도사들이 도맡는 곳이 아니라 인류의 지식을 보관하고 기록하고 전수하는 곳이기도 했다. 실제로 중세의 수도원은 이런 곳이었다. 수도원은 도서관이었다. 에코는 이러한 '수도원-도서관'을 핵심적 소재이자 공간으로 다뤄 『장미의 이름』을 썼다.

우리에게 도서관은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도 도서관은 분명히 중요한 문화 시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문화와 별로 관계가 없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문화를 '노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문화의 개념이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우리의 도서관은 문화를 떠올리기에는 대체로 너무 척박하다. 하나의 장소로서 우리의 도서관은 대체로 아름다움과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곳, 그곳이 우리의 도서관이다.

아직까지 우리의 도서관은 대부분 문화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문화적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화시설은 그 자체로 문화적 향취와 깊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쉽게 확인되는 것은 우리의 도서관이 문화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많은 책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것은 도서관의 가장 초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면 도서관은 단순한 '책 창고'에 머물기 십상이다. 더 심하게는 '책 무덤'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어떤 책을 어떻게 보관해서 잘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단순히 많은 책을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둘째, 도서관의 책을 빌려서 읽는 곳이다. 도서관의 책들은 읽히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보관한 책들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빌려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도서관의 형태와 구조가 문화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지고 간 책을 읽는 곳이다. 이 경우에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실'로 전락하고 만다. 도서관의 열람실에 도서관의 책을 빌려서 읽는 사람들보다 수험생



홍 성 태*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과 교수
hongst3@sangji.ac.kr

들이 더 많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도서관의 열람실에서 입시공부를 하거나 입사공부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도서관은 본래의 도서관보다는 '책 무덤'과 '독서실'의 성격을 더 크게 갖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도서관은 문화적 향취와 깊이를 지닌 곳이기에 앞서서 그 기능에 충실한 곳이 되는 것이 더 긴요한 과제인지도 모른다. 여전히 많은 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돈을 충분히 보유하고, 책을 보관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마련하는 문제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서들이 책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은 물론이다.

도서관으로서 작동하기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 요건'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인 곳이 많아서 다른 '사소한 문제'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서관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 되는 것도 사실 도서관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일 수 있다. 요컨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거나 읽는 곳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서관은 언제나 그것 이상이어야 한다. 책이 단순히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 아닌 것처럼 도서관도 단순히 책을 모아놓은 곳이 아니다.

순전히 기능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사실 도서관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기르고 익히는 곳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적어도 근대 이후의 도서관은 그렇다. 근대 사회의 정치적 핵심은 '민주사회'로 나타나며, 따라서 그 주체인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다. 이런

점에서 도서관은 시민들이 지식을 익히고 정보를 교환하며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곳이다. 그러므로 초라한 도서관은 그 사회의 초라한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서관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막중하다. 따라서 도서관은 그 기능에 걸맞는 훌륭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도서관 건물 자체가 그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서구의 영화에서는 흔히 도서관이 중요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아름답게 장식된 높은 천장과 넓고 아늑한 개인 열람석을 갖춘 도서관을 보노라면, 부러운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은 물론이고 꼭 찾아가고 싶은 생각도 든다. 1990년대 말에 수입된 일본 영화 '러브 레터'에서도 도서관은 사랑의 기억이 담겨 있는 낭만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 정도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는 훨씬 넓고 깊은 것이다.

우리의 도서관은 어떤가?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꿔놓은 획기적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기적의 도서관'만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 그것은 정치적 사업의 성격마저 지니게 되었다.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오해와 물이해를 깨고, 그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 그 사회적 기능에 걸맞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도서관을 이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기르는 문화적 중심으로 만드는 일이다.

여기서 다시 『장미의 이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이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은 '희극'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책의 유포를 막으려는 한 늙은 수도사의 잘못된 신념이 빛은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도서관은 한 사회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된다. 그러므로 『장미의 이름』의 도서관은 장엄하고 복잡한 형태와 구조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장미의 이름』을 읽는 동안 이러한 도서관의 형태와 구조를 따라가게 된다. 『장미의 이름』에서 도서관은 그 자체로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 대단히 낯선 공간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장미의 이름』의 도서관은 물론 움베르토 에코의 독창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지식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구 사회의 문화적 태도가 『장미의 이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의 '도서관 문학', 우리의 '도서관 영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서관이 기능과 형태의 모든 면에서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사회의 문화가 한층 깊어지고 넓어지는 변화의 과정일 것이다. (14)